

“청동기시대 장송의례의 재인식”에 대한 토론요지

히라고리 타츠야(부산대학교 고고학과)

선생님의 발표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. 하나는 습바섬의 고인돌에 대한 검토, 또 하나는 한반도 고인돌에서 확인되는 장송의례에 대한 검토이다. 즉 민족지(민속자료?)와 고고자료를 연결시킨 것인데, 이와 같은 민족지고고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자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습바섬의 고인돌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.

1. 습바섬의 고인돌에 대한 질문

- 고인돌 축조에 참여하는 인원수는?
- 성별이나 나이(노인, 성인, 어린이) 등의 카테고리가 고인돌 축조 여부의 기준이 되는지?
- 부장품이 있다면 그 종류와 양은?
- 고인돌을 축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무덤에 매장되는지?
-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하는 습바섬의 고인돌 축조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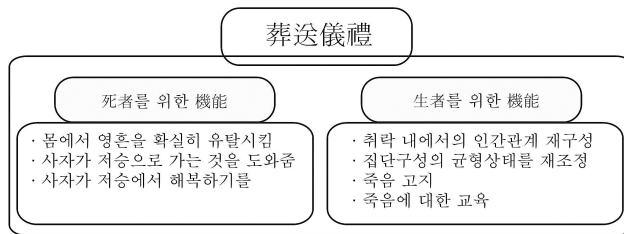
2. 考古資料와 民族誌의 關係

습바섬과 한국의 사상이나 생업, 그리고 마을 구성의 기본단위로서의 씨족 등 서로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진행한 것 같다. 양 지역에서 공통점이 보인다는 전제 하에서 소위 민족지고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신 것 같은데, 그러한 민족지에 보이는 내용과 고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대비하면서 장송의례 관련 고고자료를 해석하려고 하셨다. 물론 고고학적 사실과 고고학적 가설을 연결시켜주는 민족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 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 두 지역을 비교하기에는 양자 간에 큰 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.

결국 민족지로서의 습바섬 고인돌 축조가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?

〈參考文獻〉

- 콜린 렌프류·폴 반 편저:이성주·김종일 역, 2011, 「民族誌考古學」 『考古學의 主要概念』, 도서출판 考古.
- 大林太良, 1984, 「葬送儀禮」 『生と死Ⅱ』 東京大學教養講座10, 東京大學出版會.



葬送儀禮의 機能(大林太良 1984에서 作成)